케이캡 영업망 앞세운 HK이노엔… 의료기기 시장 진출

한국로슈진단과 플랫폼 판매계약
의료기관 네트워크에 진단기기 결합
이달부터 국내 영업·유통 본격화

HK이노엔이 대표 품목 '케이캡'으로 다져놓은 의료 영업망을 발판 삼아 의료기기 시장으로 사업을 넓힌다. 자체 R&D 투자 부담을 줄이면서 이미 검증된 글로벌 진단 플랫폼을 유통해 만성질환 관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HK이노엔은 한국로슈진단과 차세대 현장진단검사(POCT) 플랫폼 '코바스 클릭'의 국내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코바스 클릭은 당뇨 및 심혈관 질환 관리에 필수적인 당화혈색소, 지질, C반응성단백질 등에 대한 검사를 외부 수탁검사 기관 없이 진료 현장에서 즉시 수행하는 통합 진단 플랫폼이다. 환자 손끝에서 채혈해 혈당 조절 상태부터 심혈관 위험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



현장진단검사(POCT) 플랫폼 '코바스 클릭' /한국로슈진단

이번 협약에 따라 HK이노엔은 이달부터 코바스 클릭의 국내 영업과 유통을 본격 전개한다. 시약의 상온 보관 및 최대 16개월 장기 보관 등 운영 효율성이 뛰어난 만큼, 최근 원내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HK이노엔 곽달원 대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단 편의성을 높이고 환자의 효과적인 질환 관리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K이노엔의 이러한 의료기기 유통 사업 확장에는 케이캡 매출 창출과 공급 역량이 뒷받침됐다.

올해 3분기 HK이노엔은 매출액 2604억원, 영업이익 26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0.2% 줄고 영업이익은 0.6%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10.0% 수준이다.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케이캡 출고량 조절, 회계기준 변경 등 영향이 있었으나 케이캡 완제품 수출 증가와 글로벌 로열티 이익 기여가 지속되며 영업이익률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HK이노엔은 직접 개발 대신 유통 협력 모델로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문의약품(ETC) 사업으로 이미 수년간 다져놓은 의원급 네트워크에 진단 기기를 결합하는 형태여서 막대한 R&D 비용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도 기존 인프라 가치와 매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글로벌 플랫폼을 들여와 기존 영업망에 이식하는 방식은 바이오 업계 전반에서 사업 위험을 낮추는 전략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고령화 가속화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현장 진단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개발 시간과 금전적 부담을 낮추고 시장에 즉시 안착할 수 있어서다.

앞서 분자진단 전문기업 HLB파나진은 유통을 바탕으로 중장기 고도화 전략을 밝힌 바 있다.

올해 들어 글로벌 바이오 기업 룩진테크놀로지와 업무 협약을 맺고 현장진단검사(POCT)를 포함한 분자진단 제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다. 또 룩진의 장비와 카트리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제품개발까지 검토하며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HLB파나진 측은 "안정적인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신약개발 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 중심의 POCT 시장 성장세는 물론 임상연구실, 실험실 등에서의 수요도 있어 검증된 제품 도입 흐름은 유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호빵보다 군고구마… 겨울간식 지형도 변화

편의점 3사, 올해 군고구마 매출 증가
식사 대용 건강 음식으로 수요 늘어

호빵이 굳건히 지켜온 겨울철 간식의 왕좌를 군고구마가 차지했다.

과거 군고구마 장수들은 동네 어귀에서 드럼통을 개조한 화덕에 고구마를 구워 팔았다. 2026년 현재 편의점의 대표 겨울 간식으로 자리 잡은 군고구마는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배달 수요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2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CU·GS25·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3사의 올해 군고구마 매출이 일제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전년 대비 80% 이상 성장하며 겨울철 간식을 넘어 사계절 먹거리로 소비 범위를 넓히고 있다.

CU의 올해 1~10월 군고구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7% 증가했다. CU의 군고구마 매출 신장률은 2024년 23.9%, 지난해 35.0%에 이어 매년 높아지고 있다.

군고구마는 겨울철 대표 간식인 호빵을 제치고 편의점의 주요 즉석 먹거리로 자리 잡았다. CU에서는 2020년 군고구마 매출이 호빵을 처음 앞선 이후 격차가 계속 벌어졌다. 지난해 군고구마 매출은 호빵의 약 3배에 달했다.

GS25 역시 군고구마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10월 군고구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4% 증가했다. GS25는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군고구마를 가벼운 식사나 건강 간식으로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CU의 군고구마가 계절과 객층의 경계를 넘어 인기를 끌며 기존 겨울철 대표 간식이었던 호빵과의 매출 격차를 벌리고 있다. /BGF리테일

세븐일레븐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올해 1~10월 군고구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세븐일레븐 역시 군고구마가 직장인과 체중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 사이에서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군고구마 매출 증가를 이끄는 주요 고객층으로 떠올랐다. CU의 올해 1~9월 외국인 군고구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6.9% 증가했다. 지난해 42.7%였던 외국인 매출 신장률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GS25의 올해 1~9월 외국인 군고구마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71.4% 증가했으며, 세븐일레븐은 올해 1~10월 외국인 매출이 49% 늘었다.

/김서현 기자 seoh@

설화수, 매화 담은 홀리데이 컬렉션 선봬

하루 하나씩 여는 설렘 건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하얀 눈 속에서 피어난 매화 한 송이가 고단했던 한 해를 다정하게 보듬고 다가올 내일에 따스한 설렘을 건넨다.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는 겨울 정원의 포근한 감성을 구현한 2026 연말 한정판 '대즐링 홀리데이 딜라이트'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 주제는 동양 겨울 정원에서 싹을 틔우는 매화의 굳은 생명력과 경이로움이다. 옛 민화 속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은은한 은빛까지 활용해 설화수만의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와 함께 첫 스킨케어 단계에서 피부를 가꿔주는 윤조에센스를 비롯해 깊은 영양감을 갖춘 자음생크림, 진설크림, 맑은 안색을 표현하는 퍼펙팅 쿠션 에어리 등을 한 데 담았다. 각 제품마다 소나무, 산사나무, 매화 등 서로 다른 디자인을 넣어 연말 선물의 특별함을 전달한다.



설화수 2026 홀리데이 컬렉션 '대즐링 홀리데이 딜라이트' /아모레퍼시픽

또 하루에 하나씩 상자를 여는 즐거움 속에서 연말 하루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설화수 어드벤트 캘린더'를 함께 출시한다. 윤조에센스 30ml, 윤조 아이세럼 20ml, 윤조에센스미스트 50ml, 자정앰플세럼 30ml 등으로 구성해 실용성을 높였다.

설화수 관계자는 "한 해 동안 고생한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 모두가 설화수를 통해 눈부시게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유플라이마' 40mg PFS-S 국내 출시

셀트리온제약, 유플라이마 라인업 확대

셀트리온제약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의 40mg 프리필드시린지(PFS-S) 제품이 11월 1일 건강보험 급여에 신규 등재되면서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출시로 셀트리온제약은 기존 펜 타입 중심의 유플라이마 제품군에 안전장치를 갖춘 PFS-S를 추가하게 됐다. PFS는 약물이 미리 충전된 주사기이며, PFS-S는 PFS에 주사 후 바늘을 감싸는 안전장치를 적용한 제품이다. 사용 후 주사침 노출을 줄이도록 설계돼 있어 의료진의 안전한 취급을 돕는다.

유플라이마 40mg PFS-S의 약가는 1회 투여분 기준 22만390원으로, 국내에서 급여가 적용되는 동일 성분 40mg 제품 중 최저 수준이다. 이를 통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경제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한편, 기존 펜 타입과 함께 환자의 상태와 투여 환경, 선호도 등을 고려한 제품 선택을 지원할 수 있다.

셀트리온제약은 이번 40mg PFS-S 출시에 이어 2027년 유플라이마 20mg PFS도 국내에 선보일 계획이다. 저용량 제품까지 출시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한 함량과 제형을 모두 갖춘 국내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나 필요한 투여 용량에 따라 의료진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처방 기반을 넓힐 예정이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는 환자에게 있어 약제의 경제성과 함께 투여 방식, 사용 후 취급까지 고려한 제품 선택이 중요하다"며 "유플라이마의 약가 경쟁력과 다양한 제품 구성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진의 치료 수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대웅제약, 차세대 약물전달 기술 공개

美 'PODD 2026'서 연구성과 발표
펩타이드·바이오의약품 적용 전략 제시

대웅제약이 약물 투여 간격과 방식, 부피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약물전달시스템(DDS) 기술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검증했다. 신약 공동개발 등 글로벌 빅파마들과 실적인 협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29~30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 약물전달 기술 콘퍼런스 'PODD 2026'에 참가해 차세대 약물전달 플랫폼 연구성과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신약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지속형 주사제 '큐어' ▲마이크로니들 패치 '클로팜' ▲바이오의약품 고농축 제형 '써미크라' 등을 선보였다.

행사 첫날 대웅제약 김관영 제제기술센터장은 '펩타이드·바이오의약품을 위한 차세대 약물전달 플랫폼 솔루션'을 주제로 구두 발표도 진행했다. 김 센터장은 각 약동학 연구 성과와 함께 약물 특성에 맞춘 플랫폼 적용 전략을 제시했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장기지속형 주사제 '큐어'는 생분해성 고분자를 활용한다. 약물을 일정 기간 지속 방출해 투여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펩타이드 약물 대상 연구 결과와 대량생산 공정 개발 성과를 소개했다.

마이크로니들 패치 기술인 '클로팜'은 미세한 바늘을 이용한다. 특히 비만·당뇨병 치료제 관련 GLP-1 계열 약물의 패치 투여에 따른 체내 흡수율, 혈중 농도 변화 등을 연구했다. 바이오의약품 고농축 기술인 '써미크라'는 항체 및 항체·약물 접합체(ADC) 치료제 개발에 쓰인다.

대웅제약은 행사 기간 독자 부스를 운영하며 글로벌 제약사들과 후속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자사 플랫폼 기술을 외부 후보물질에 접목하는 방식의 파트너십을 다각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